

홍천실버신문 을사년(乙巳年) 신년사

“2025년 새해에도 함께 힘을 모아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홍천실버신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수 신영재입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군민과 홍천실버신문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다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저는 홍천군수로서 우리 군민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이웃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 홍천실버신문 편집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홍천실버신문은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언제나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024년에는 경로당에 16개의 순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적 경로당 250개소가 수업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3월에는 경로당 에어컨 청소 사업을 진행하여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식기세척기도 경로당 55개소에 11월까지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미설치 경로당을 대상으로 약 42개소에 추가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냉난방비와 양곡을 정부 지원 기준보다 더 많은 군비 예산을 투입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드시며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보금자리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들의 교육과 여가의 시간을 더욱 알차고 유익하게 꾸릴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오늘날 어르신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에 맞춰 다양한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어르신들의 소중한 역할과 기여를 함께 존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년 새해에도 홍천실버신문 가족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한 일들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천군수 신영재 올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홍천실버신문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홍천군의회 의장 박영록입니다.

희망찬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뱀이 가진 지혜와 유연함을 닮아 모든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앞날에 큰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의 이슈로 군민 여러분께서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물가의 지속, 의료 위기, 불안정한 정치 상황 등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했으며, 이로 인한 어려움과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홍천실버신문은 우리 홍천 지역의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어르신 기자단 여러분께서 직접 발로 뛰며, 지역사회의 소통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홍천군의회는 지난 한 해도 “주민을 생각하는 의회,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이라는 구호 아래 주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고, 대의기관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있었겠지만, 의회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홍천실버신문 독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천군은 인구 감소와 지역 쇠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도시 홍천”을 위해 연일 매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심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성공적 운영, 전국 최초의 외국인 주민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등으로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사회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보다 희망적인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홍천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홍천의 미래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용문~홍천 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조기 착공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9대 의회 후반기의 중반을 지나는 2025년은 그 간 의원 연구단체에서 연구했던 결과가 더욱 구체화 되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천실버신문 독자분들과 군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홍천군의회 의장 박영록 올림

홍천실버신문 을사년(乙巳年) 신년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여, 더욱 촘촘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홍천실버신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영욱 의원입니다. 모두 「을사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으로 뜻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푸른 뱀의 해는 지혜롭고 상서로운 기운을 품고 있어,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복이 따를 것이라 믿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갑진년」 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 큰

행복 그리고 더 건강한 한 해가 펼쳐지리라 기대하시며 새해를 희망차게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오신 어르신들께서 후대 세대의 깊은 존경과 배려를 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와 권리가 있다는 믿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르신들께서 기울여온 무수한 노력과 헌신이 오늘날의 발전을 이끌어왔기에, 그 가치를 존중하고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홍천노인대학장」으로서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어르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그 어떤 의원보다 앞장서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여, 더욱 촘촘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후반기에도 전반기에서처럼 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원장이라는 직함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교직 경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우리 홍천군을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 내신 풍요로운 오늘의 대한민국이 대대손손 지속 가능하도록 후대들을 교육하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리며 어르신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홍천군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영욱 올림

“경제적 한파와 정치적 혼란 속에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 또한 이겨낸 대한민국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홍성기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천실버신문 구독자 여러분, 도내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노인복지 종사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원특별자치도는 고령자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 빈곤, 여가 부족, 외로움,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부족 등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년사’에 따르면, 많은 어르신이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불편함, 정서적 외로움,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겪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 관련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이 국가와 지자체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통감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품격 있는 노후생활은 편안한 주거, 사회적 관계, 여가생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노인주거복지, 재가노인복지, 노인주거 보장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의 편안한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도아파트와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 및 고립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여가복지시설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복지 사업은 종사자들과 참여 어르신들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북유럽 복지국가 사례를 보면, 그들도 우수한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K-POP, 평화적 집회를 주관하는 청년들, IMF와 코로나19를 이겨낸 중·장년층,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단기간에 성장시킨 어르신들의 후예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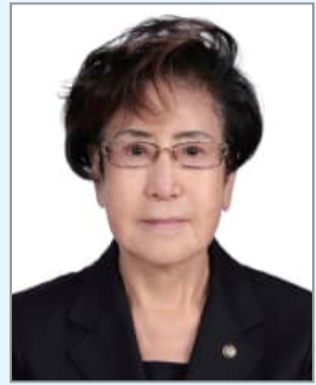
우리 국민들은 경제·문화 모두 단기간에 우수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노인복지 또한 공직자, 종사자, 참여 어르신들의 저력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우수한 정책이 반드시 정착될 것입니다.

현재 도민들은 경제적 한파와 정치적 혼란 속에 위기를 겪고 있지만, 2025년 을사년에는 이 또한 이겨낸 대한민국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홍성기 올림

홍천실버신문 을사년(乙巳年) 신년사

“어르신들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느끼며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홍천군노인복지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수석부회장 김영안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이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해지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지역 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조사 및 연구, 각종 복지사업의 추진, 그리고 군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힘쓰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와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과 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동반자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지지 덕분에, 여러 복지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결과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에 가능했음을 깊이 감사드리며, 그 소중한 뜻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더 나은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기존의 초심을 잃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요구와 변화를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의 필요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복지사업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을 이뤄가겠습니다. 복지 사업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환경을 향상하고,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은 홍천군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수석부회장 김영안 올림

“어르신들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느끼며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장 이형주입니다. 홍천실버신문 창간 128호를 맞아 신년사를 전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하여 활기차고 힘찬 기운을 받아 올 한 해도 건강과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는 노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1970년 8월 15일 창립되어 노인복지 증진과 노인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후 10개 읍·면 분회와 205개 읍·면 경로당 13,000여 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노인단체입니다.

‘어른다운 노인’이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노인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체육 행사 개최, 노인대학 및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취업 알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소득 증대와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자신감을 느끼며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홍천군 전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5,775명의 어르신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노년기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년 세대는 더 이상 복지수혜의 대상이거나 세대 간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살려 후배 세대에게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사회를 넘겨주기 위해 굳건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책임 있는 세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정부와 홍천군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재능이 잠재되지 않도록, 활발히 활동하시어 그 능력을 발휘하고, 후세에 잘 계승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해지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장 이형주 올림

홍천실버신문 을사년(乙巳年) 신년사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천군민 그리고 홍천실버신문 구독자 여러분!
홍천군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신동천입니다.

푸른 뱀의 해,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뱀은 허물을 벗는 동물로, 새로운 시작과 변화의 상징입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모두 과거의 어려움과 고난을 떨쳐내고, 유연하고 강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더 큰 희망과 행복을 이루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어르신들의 교육과 취미·여가를 위해 다양한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건강과 행복을 위한 노인맞춤 돌봄, 병원동행, 방문목욕 등의 돌봄 서비스 제공했으며, 지역사회와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다양한 조직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으며, 그 결과 많은 어르신께서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 공동체의 가치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복지관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더 힘을 내어,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에는 “행복한 어르신, 가고 싶은 복지관, 함께하는 지역복지”라는 비전 아래, 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홍천군민 여러분과 홍천실버신문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늘 함께하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더욱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천군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신동천 올림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홍천실버신문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홍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원의 힘 회장 박형균입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뱀은 지혜와 변화의 상징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5년은 만원의 힘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준비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해가 될 것입니다.

작년, 저는 몇 년 동안 후원자로 활동하다가 만원의 힘 회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웠지만, 취임식에서 그동안 만원의 힘이 홍천군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나아가 동해 지역 산불 성금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회장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며, 만원의 힘의 일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봉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만원의 힘은 작은 기부가 모여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된 운동입니다. 우리의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믿고 앞으로도 만원의 힘 후원자를 더 많이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 모여,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나아가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미 만원의 힘 후원자로서 소중한 기부를 해 주고 계시지만, 아직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입니다. 올해 새해를 맞아,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길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원의 힘의 뜻깊은 활동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는 모든 분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천군노인복지관 만원의 힘 후원회 회장 박형균 올림